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월22일 주일 설교입니다.

<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요한복음 14:26,27 / 새찬송가 412장 (통일 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1. 평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불안이란 ‘모든 악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숨어있는 모든 가능성’을 말합니다. 평안은 이런 ‘악의 가능성’인 불안을 제거하며 주어지기에 실로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의 쾌락 명예 권세 부나 모든 위대한 일들은 항상 죄로 말미암아 불안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또 평안은 축복보다 더 낫습니다. 축복이란 ‘뭔가 잘 되게 하는 것’인데 평안은 ‘뭔가 잘 안되게 하는 것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 안되게 하는 하나의 악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악을 그대로 둔 채 열 가지 선을 얻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 삶이 잘 되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해야 잘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보다 더 깊고 성숙한 기도는 평안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새찬송가410장 4절).

2.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적 평안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바깥 환경에서 외적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평안하고자 힘과 능력으로 적을 제거하거나 환경을 고치려 하고 개개인은 다른 사람의 평판을 살피며 자신의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신경 쓰고 앞날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들의 모든 가능성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서는 인생 끝날 까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외부 세상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심령의 평안이 훨씬 중요하다’ 하셨습니다(시46:1-3). 어거스틴도 ‘사람의 깊은 내면에 진리가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내면이 바깥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늘 우리 내면으로 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내면의 이성적 판단보다 더 깊은 내면 ‘안의 안’입니다. 이 깊은 내면 ‘안의 안’의 평안은 왜 평안한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평안이 있었던 스데반

이나 바울과 실라는 큰 박해와 죽음 가운데에서도 평안했습니다(행7:55,56),(행7:59,60).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 마음 깊은 내면에 들어오셔서 평안을 우러나오게 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평안이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요14:17),(요14:26).

3.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주님이 가지신 그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평안’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느끼는 평안을 가져야 한다면 화를 삭이고 덕목을 쌓는 수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가지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요14:27). 이는 내가 수양이 덜 되고, 마음에 온갖 죄악과 욕심이 가득한 상태라도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평안을 구하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주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새찬송가 408장1절)!

< 적용 & 실천 >

우리는 어떤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환경, 가족, 일, 돈 등 외부적인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속의 속에 거하기를 간구합시다!